

# “1위 내놔” ... 전남 드래곤즈, 안양 대첩 나선다

### 오늘 오후 7시 30분 K리그2 선두 싸움 ‘뜨거운 밤’ 승점 28 동점 안양이 득점 앞서... 전남 발로텔리 득점포 기대

‘월요일밤’이 K리그2 선두싸움으로 뜨거워진다. 전남드래곤즈가 28일 안양종합운동장으로 가서 오후 7시 30분부터 FC안양과 18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K리그 팬들의 시선이 쏠리는 1·2위의 맞대결이다. 현재 K리그2 1위 안양과 2위 전남은 올 시즌 나란히 8승 5무 4패(승점 29)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17라운드 경기에서 안양이 부산을 상대로 무려 5골을 몰아넣으면서 득점(안양 23점·전남 19점)에 앞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실상 승점 6점이 걸린 맞대결에서 전남은 ‘원정 무패’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전남은 지난 17라운드 충남아산원정에서 김영욱의 K리그 데뷔골을 앞세워 1-0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이 승리와 함께 올 시즌 원정경기에서 4

승 4무를 기록하며 ‘원정무패’를 이었다. 지난 시즌까지 더하면 지난해 7월 10라운드 안양 원정을 시작으로 원정 7승 10무, 17경기 연속 무패 중이다. 팀을 대표하는 공격수 전남 발로텔리와 안양 조나탄의 화력싸움에도 눈길이 간다. 발로텔리와 조나탄은 올 시즌 나란히 7골을 기록하면서 부산 안병준에 이어 득점 2위 싸움을 하고 있다. 발로텔리는 빠른 발과 드리블을 활용한 침투 능력 그리고 뛰어난 슈팅 실력이 돋보이고, 조나탄은 큰 키를 활용한 제공권에서 좋은 면모를 보인다. 두 팀을 대표하는 골잡이의 성적에 따라서 이날 경기 결과도 달라질 전망이다.

올 시즌 12실점으로 ‘최소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전남은 ‘이적생’ 최호정의 경험을 더해 안양을 봉쇄할 계획이다. 최호정은 지난 시즌 안양의 주장까지 수행했던 만큼 상대를 잘 안다. 최호정이 친정을 상대로 전남의 ‘잔물수비’를 보여줄지도 관심사다. 두 팀은 상대 전적에서 3승 2무 3패로 팽팽히 맞서 있다. 광양전용구장에서 전개됐던 시즌 첫 대결에서는 안양이 후반 종료 직전 기록된 조나탄의 페널티킥 골로 1-0 승리를 가져갔다. 이번 경기를 통해 K리그2는 반환점을 돌게 된다. 안양에 득점에서 밀리는 전남이 2021시즌의 반

환점을 1위로 돌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하다. 1위 싸움에 또 하나 변수가 있다. 같은 시간 4위 김천상무FC가 충남아산FC를 상대로 홈에서 18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현재 김천상무는 승점 27로 4위에 올라있다. 전남과 안양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고, 김천상무가 승리를 한다면 세 팀의 승점이 30으로 같아진다. 현재 안양이 득점에서 두 팀에 4점 차로 앞서 있지만 축구는 모른다. 어느 팀이 1위로 2021시즌의 반환점을 돌게 될지, 흥미로운 ‘만데이 나잇 풋볼’ 경기가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레나에서 열린 UEFA 유로2020 16강 경기에서 덴마크의 카스퍼 돌버그(맨 왼쪽)가 웨일스를 상대로 슈트를 쏜다.

/연합뉴스

## 덴마크, “에릭센을 위하여” 8강 골인 이탈리아, A매치 31경기 무패 행진

### 유로 2020 축구

60년만에 월드컵 예선 탈락의 쓴잔을 마셨던 이탈리아 축구대표팀이 지는 법을 잊고 유럽 정상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7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16강전에서 오스트리아와 연장 접전 끝에 2-1로 이겼다. 이 승리로 이탈리아는 유로 4개 대회 연속 8강 진출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자체 A매치 최다 연승, 최다 무패 기록도 한 번에 경신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1월 에스토니아와 경기

(4-0 승)부터 이날 오스트리아전까지 12연승을 기록했다. 2018년 11월 미국과 경기(1-0 승)부터 2019년 11월 19일 아르메니아전(9-1 승)까지 기록했던 11연승 기록을 넘어섰다. 또 2018년 10월 우크라이나(1-1 무승무)전부터 31경기(26승 5무)째 안 져 1935년 11월 24일부터 1939년 7월 20일까지 기록했던 30경기(24승 6무) 무패 기록을 경신했다. 이탈리아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월드컵에서 4차례나 정상에 오른 이탈리아가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한 건 60년만의 굴욕이었다.

예선 탈락 뒤 2018년 5월 인터밀란(이탈리아),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등 명문 클럽을 이끌며 프로 무대에서 이름을 날리던 ‘명장’ 로베르토 만치니(57) 감독을 사령탑에 앉힌 게 ‘신의 한 수’가 됐다. 만치니 감독은 그간 대표팀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여러 선수들을 테스트해 세대교체를 이뤄냈다. 이탈리아 특유의 ‘빗장수비’는 그대로 두고 공격 루트를 다양화해 대체로 손쉬운 축구를 펼쳤다. 특히, 후방 빌드업에 능한 조르주키우(첼시)와 공격 가담이 좋은 니콜로 바렐라(인터밀란), 활동량과 조율 능력이 돋보이는 마르코 베라티(파리 생

제르맹)가 포진한 중원은 완벽에 가까운 조화를 보였다. 확 달라진 이탈리아는 이번 유로에서 막강 화력까지 뽐냈다. 조별리그에서 7득점, 무실점으로 3연승을 기록했다. 대회 초반 베라티가 부상으로 결장했으나, 마누엘 로카텔리(사수올로)가 빈자리를 잘 메웠다. 이날 오스트리아전에서는 만치니 감독의 용병술도 빛났다. 후반 22분 투입한 마테오 페시나(아탈란타)와 후반 39분 그라운드를 밟은 페데리코 키에사(유벤투스)가 연장전 각각 결승골과 선제골을 책임졌다. 1968년 대회 이후 53년만의 유로 우승까지 3계단 남았다. 이탈리아는 벨기에-포르투갈 경기 승자와 3일 오전 4시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8강 대결을 펼친다. 한편, 덴마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레나에서 열린 웨일스와 16강에서 4-0 완승을 하고 2004년 대회 이후 17년 만에 8강에 안착했다. /연합뉴스



## 류현진 7승

### 6회까지 무실점·7회 4실점

류현진(34·사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6월의 마지막 등판에서 시즌 7승(4패)째를 거뒀다. 류현진은 2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세일런필드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치른 미국프로야구(MLB)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던지다가 7회에 안타 5개와 볼넷 1개를 허용하고 4실점 했다. 류현진은 12-4로 크게 앞선 7회초 2사 2, 3루에서 제이컵 반스에게 마운드를 넘겼고, 반스가 트레이 맨시니를 삼진으로 돌려세워 류현진의 자책점은 더 늘지 않았다. 6%이닝 동안 안타 7개를 맞고 4점을 줬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3.25에서 3.41로 올랐다. 팀의 12-4 승리로 류현진은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21일 볼티모어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승리를 낚았다. 류현진은 이날 삼진 3개를 보태 빅리그 통산 탈삼진 809개를 기록하고, 역대 한국인 빅리그 투수 중 박찬호(1715개)에 이어 이 부문 단독 2위로 뛰어올랐다. 류현진은 여섯 전 볼티모어전에서 체인지업의 제구가 흔들리자 빠른 볼 위주로 볼 배합을 바꿔 4번째 도전 만에 승리를 안았다. 이날도 최고 시속 148km의 속구를 주로 던지며 체인지업, 컷 패스트볼, 커브 4개 구종으로 볼티모어 타선과 맞섰다. 야구 통계 사이트 베이스볼스번트를 보면, 류현진은 투구 수 91개를 빠른 볼 32개, 체인지업 26개, 커브 13개, 컷 패스트볼 18개, 슬라이더 2개로 채웠다. 류현진은 2회 두 타자를 포함해 7회 1사까지 15 타자를 연속 범타로 요리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산탄데르에게 중월 2루타를 내준 뒤 갑작스럽게 흔들리며 류현진은 대량실점 했다. /연합뉴스

## ‘부상 병동’ KIA 타이거즈 ... 백약이 무효

### 팔꿈치 부상 전염병처럼 번져 투수 이어 야수진 운영도 차질

‘특별 캠프’라는 처방도 허약한 KIA 타이거즈에는 무효가 됐다. KIA에 ‘부상’은 지긋지긋한 단어다. 지난 시즌에는 햄스트링 부상이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야수진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올 시즌에는 골목근 부상이 새로운 유행이 됐다. 맹텐을 시작으로 브룩스가 골목근 부상으로 한참 자리를 비우고 있고 26일 경기 도중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던 박준표도 27일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물론 야수진 부상도 이어지고 있다. 나자완이 복사근, 류지혁이 햄스트링, 그리고 최형우는 망막 이상으로 재활군에 이름을 올렸다. 박찬호도 수비 도중 어깨 부상을 입어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나자완과 류지혁은 지난 22일 복귀했지만 최형우는 햄스트링으로 다시 재활군에 있다. 어느 팀에서나 매 시즌 부상자가 나온다. 하지만 KIA에서 ‘부상’은 유난한 단어다. 허약한 팀 체질 탓에 부상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KIA는 몇 년 동안 부상으로 신음하면서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며 선수층을 두텁게 다지는 데 실패했다. 재활조 일부 선수들은 음주 문제로 논란을 빚었고, 구단은 선수단 관리의 허점을 노출했다. 선수층이 얇아 보니 부상자의 부재는 더 크게 느껴진다. 아쩔 수 없는 변한 기용에 치열한 경쟁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시즌 부상의 늪을 경험한 윌리엄스 감독은 ‘체력’에 초점을 맞춰 올 시즌을 준비했다.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기술 대신, 최상의 몸과 컨디션으로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체력을 강조했다. 감독이 직접 선수들과 면담을 갖고 유연성, 체중 관리, 부상 예방 등 맞춤형 스킴을 준비했다. 스

프링캠프에서도 투구수를 조정하고 관리했다. 또 주전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실전 페이스도 서서히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KIA는 올 시즌에도 부상에 발목 잡혔다. 부상 공백도 길다. 지난 5월 26일, 6월 4일 각각 엔트리에서 빠져있던 맹텐과 브룩스는 ‘합병차사’가 됐다. 그나마 브룩스의 복귀가 초미기에 들어갔지만, 공백이 길었던 만큼 100% 활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5월 10일 팔꿈치 통증으로 한 차례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박준표의 활용도 고민이다. /연합뉴스

박준표는 6월 6일 복귀 후에도 완벽한 몸 상태를 보여주지 못했고, 6월 9경기에 나와 9.2이닝 동안 3개의 피홈런을 맞는 등 9.31의 평균자책점으로 부진했다. 지난 24일 브룩스의 라이브 피칭에 맞춰 최형우도 방망이를 들었지만, 재발이 잦은 부상인 만큼 돌다리도 두드려서 복귀를 준비해야 한다. 부상 악몽에 ‘마운드 변칙 운영’도 재현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김유신을 24일 불펜으로 기용한 뒤, 26일 기용전에서는 선발로 내세웠다. 앞서 김유신은 16일 SSG전에서도 불펜투수로 등장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이어진 비 때문에 선발 등판이 밀리면서 불펜으로 11일 만에 마운드에 올라 경기 감각을 조절했었다. 이번 불펜 투입은 그때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를 샀다. KIA가 부상 악몽을 끊기 위해서는 선수층과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